

#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실천 과제



조 석 행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돼지가격이 그런대로 괜찮은 선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양돈농가들은 재미를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돼지들은 날보고 무어라 할지...

그리고 돼지가격이 항상 좋으리라는 법도 없으니 좋을때 불황을 대비하면서 특히 '97년 7월부터는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라도 생산비 절감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하나 하나 실천해 간다면 가격은 물론 소득이 안정되고 경쟁력도 증대되어 우리는 아무 걱정없이 마음놓고 돼지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1. 사육규모의 적정화

매년 돼지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반면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당 사육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부업규모 양돈에서 전업규모 양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농가에서는 돈사시설과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분석하여 사육두수를 증감하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적정두수란 돈사시설, 자동화 여부, 노동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가 무리없이 관리가 가능한 두수를 적정두수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양돈경기가 좋다고 무작정 규모를 확장하면 실패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사육현황

	'80	'90	'92	'94
호수(천호)	428	133	99	54
두수(천두)	1,653	4,528	5,463	5,955
호당(두)	3.9	34.0	55.2	110.5

## 2. 종돈의 단순화 및 통일화

가급적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는 종돈장과 계약하여 동일 교배조합의 일대잡종 모돈으로 단순화 및 통일화시키는데 종돈생산은 전문 종돈장에 맡기고 동일교배의 3원 교잡종 한가지만을 생산

하는 일괄관리 체계가 바람직하다.

모돈이 통일되면 관리의 표준화가 가능해져서 주간 생산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돈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태지를 검정성적 및 외관에 참고하여 계획적인 교배로 번식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3. 품질 향상

기존 사육체계에서는 돼지고기중 유해물질 잔류 방지를 위해 출하 30일전에 비육돈 후기사료를 급여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수출규격돈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육돈 후기사료를 체중 50~60kg부터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돈사의 방역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비육돈 후기사료를 일찍 급여하여도 호흡기 계통의 질병 발생 등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비육기에 육성돈 사료를 계속 급여할 경우 항생물질 등의 잔류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육기에는 반드시 비육돈 후기사료를 급여하여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여야 한다.

### 4. 시설 개선

급이 및 급수시설의 자동화는 물론 돈사내에 팬을 설치하여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불도록 해주면 여름철 돼지의 체감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동 타이머가 장착된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면 돈사내 온도상승과 먼지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온풍기를 설치하면 추운 겨울철

에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분뇨의 효과적인 정화 처리 및 유기질 비료 생산은 물론 수질 및 환경 오염 방지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같이 시설을 설치 및 자동화함으로써 관리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개선으로 돼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 5. 협업단지 육성

전업규모 이하 개별사육 농가끼리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의 공동출하, 공동방역 등을 실시하고 생력양축을 위한 시설개선 및 비육돈 생산체계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92~'94년까지 25개소를 육성한 결과 평균 분만간격은 163일로 협업전 대비 8일이 단축되었고 복당이유두수는 9.6두로 0.8두 증가되었으며 90kg도달 일령은 167일에서 159일로 8일 단축되었고 두당 소득에서는 일반 농가 대비 17~24% 증가하였다.

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256백만원을 조성하였고 비육돈 169천두를 출하하여 8,157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협업경영이 곧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아난가도 생각해 본다.

### 6. 출하체중 증대

현재 비육돈의 출하체중, 생산비 등 모든 자료에는 90kg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

〈표 2〉 비육돈 후기사료 급여 효과

	시 험 1	시 험 2	시 험 3
체 중 35 ~ 50 kg	육 성 돈 사 료	적 맥 이 사 료	적 맥 이 사 료
체 중 50 ~ 90 kg	비 육 돈 후 기 사 료	육 성 돈 사 료	육 성 돈 사 료
체 중 90 ~ 110 kg	비 육 돈 후 기 사 료	비 육 돈 후 기 사 료	육 성 돈 사 료
일 당 증 체(g)	799	810	825
1 kg 증 체 당 사 료 비(원)	655	728	732
두 당 판 매 소 득(천원)	53.7	45.4	44.2

재 출하되고 있는 체중은 약 100kg 정도이며 경 체성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출하체중이 105kg 또는 110kg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표 3〉 연도별 돼지 출하체중변화 (단위 : kg)

'85	'90	'91	'92	'93	'94
88.3	90.5	90.9	94.0	98.4	100.6

출하체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체중 50kg까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성장을 시키고 50kg 이후에는 제한급사 등 발육속도를 약간 떨어뜨리면서 비육하게 되면 과도한 지방축적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등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자동화, 관리의 생력화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료의 제한급여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시험결과에 의하면 90kg 출하시에는 생체 kg당 생산비가 1,098원이고 110kg 정도에서 출하할 때에는 1,081원으로 17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 7. 수출 및 경쟁력 증대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냉장 및 냉 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겹살 등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연도별 돼지고기 수출 실적

	'90	'91	'92	'93	'94
물 량(천톤)	5.9	3.6	8.5	10.9	11.1
수출액(백만불)	31.7	21.3	43.8	64.5	65.3

수출물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돼지 가격이다. 즉 돼지가격이 싸면 수출물량이 늘고 돼지가격이 비싸면 국내 가격안정 등으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인 대만, 미국 등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다.

〈표 5〉 국제 경쟁력 비교

	우리나라	경쟁국
90kg 생산비(천원)	124.1	(대만) 107.0 (미국) 76.1
지 육(원/kg)	2,268	(미국) 2,069
삼 겹 살(원/kg)	4,667	(미국) 1,580

돼지사육에 따른 두당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비가 최근들어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번식돈 및 비육돈의 연도별 생산비

	'85	'90	'92	'94
번 식 돈				
이 유 두 수(두)	16.3	17.7	18.5	18.8
자 돈 생산비(천원/두)	27.3	32.3	38.9	33.9
연 간 소 득(천원/두)	184	207	285	372
비 육 돈				
생 산 비(원/생체kg)	1,204	1,229	1,379	1,279
두 당 소 득(천원)	33	39	28	49

## 8. 목표의 설정과 실천

양돈농가는 계속 줄어 2001년에는 13천호가 돼지 7,143천두를 사육하여 호당평균 550두이고 이중 규모화된 전업농 5천호에서 80% 이상을 사육하게 된다.

생산비는 90kg 비육돈의 경우 97천원, 자돈 29천원으로 절감되고 출하체중도 105kg으로 완전 정착될 뿐만 아니라 일당증체도 968g으로 향상된다.

계열화 체계에서 생산될 돼지를 선진화된 도축센터에서 위생적으로 처리 가공될 것이며, 브랜드화된 돼지고기를 냉장체계에 의해 부위별 차등 가격제로 판매되는 등 양돈업도 크게 변해갈 것이라하니 양돈농가에서는 이와같이 변화하는 양돈사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 차근 다져나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